

notice Announcement

- Notice
- Bidding Guide
- Press release
- Press explanation
- Photo News
- On-site survey of nursing institutions
- Publicity

- Public health insurance false claim list of nursing institutions
- Announcement of the list of workplaces that do not fulfill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 workplace daycare center
- Cooperative management disclosure
- Management Disclosure Inquiry
- Notification window
- Billboard

Shortcuts

- Application
- Organization chart
- Department Information-Find Employees
- way to come
- Counseling Center 129
- Corruption and Public Interest Reporting Center

Press release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19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Regular (April 19)

Registration Date: 2020-04-19 [Last Modified Date: 2020-04-21] Hits: 7064 Person in charge: Minjoo Kim
Department in charge: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19 Central Accident Control Center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19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Regular Briefing-

- ▲Results of public perception surveys related to social distancing ▲Directions and plans for social distancing
-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when purchasing a public mask by proxy, etc.-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for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19 was presided over by Jung Sye-geon (Prime Minister), with each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 and 17 cities and provinces in the video conference room at the Government Complex. ▲Directions and plans for social distancing ▲ Promotion of public masks by proxy purchase The city discussed the importance of family relations certificates.

At this meeting, headquarter Jeong Sye-kyun stated that the efforts of the releva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ere great for some achievements such as the overall decline, such as the absence of confirmed cases of local government, improvement of the mask supply and demand situation. I asked you to do your best.

1. Results of public perception survey related to social distancing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conducted a public perception survey (combined web and mobile survey) on social distancing on 1,000 citizens randomly extracted after proportional allocation by region, gender, and age for two days on April 1 and 2.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survey, 36.7% agreed and 63.3% disagreed with the immediate easing of social distancing.

The specific reason for the immediate easing of social distancing was ▲The most common opinion that the people are practicing and maintaining social distancing sufficiently in their daily lives, with 43.6%, ▲because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has sufficiently decreased, 19.6%, ▲the economy was too difficult, and 17.7% said it was due to fatigue caused by social distancing.

The specific reasons for opposing the immediate relief from social distancing are ▲66.2% because it can be re-proliferated at any time of vaccines or treatments, ▲14.4% because there are still many new cases in Korea, ▲very concerned about the occurrence of overseas cases. Because of this, 13.3% of respondents said that it is because the public is not familiar with the rules of life quarantine and needs guidance and education.

In addition, among the people who oppose the immediate easing of social distancing,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appropriate time to ease social distancing should be judged by the quarantine author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nternational situation, treatment regimens, and the deadline cannot be specified. It was the highest at 66.5%.

* ▲ 18.0% after 2-4 weeks, ▲ 10% after 4 weeks, ▲ 5.5% within 2 weeks

On the other hand, when asked about the areas where social distancing is most urgent for all survey subjects, ▲ elementary, middle schools and universities showed the highest at 52.3%, ▲outdoor activities and sports facilities 20.0%, ▲indoor activities and sports facilities 14.0%. Indoor seating facilities and accommodations were followed by 9.0%.

This survey was commissioned by Korea Research Co., Ltd. and the sampling error is ±3.1%p, the maximum allowable sampling error confidence level.

2. Social distancing promotion direction and plan

Today,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discussed and decided on the direction and plans for social distancing on April 19th.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 19 from March 22, 'reinforced' social distancing has been implemented, taking into account the first wave of pandemic of Corona 19, community infection of foreign patients, and persistent group infection. It has been extended by two weeks to April 26th.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nnounced that positive quarantine outcomes have recently been showing a decrease in the number of new confirmed cases and a decrease in the number of group infections, and that we sincerely thank the positive efforts of staff, volunteers, and related persons for their efforts.

하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환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국민 이동으로 인한 감염 전파가 우려되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백신,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전문가를 비롯한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 의견도 현 상황에서 자칫 사회적 성급히 중단하고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짐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어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경제 활동 침체로 인한 서 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거리 두기 수위를 다소 조절하여,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기존보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전보다 다소 완화하되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며,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계획이다. 재개 대상 시설,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하여 공개한다.

민간 부분의 경우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 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한다.

다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들 에서 운영 자체 권고로 조정하고, 운영할 경우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로 방역상황 및 확산 위험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지도, 위반 시 금지명령 및 처벌 로 적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이행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함께 추 다.

개인,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하여 적용하고 숙지하도록 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을 일상 생활에서 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이번에 재개할 실외 시설 외에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와 단계적 운영 재개 계획을 각 부처가 미리 준비하 다만,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사회가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감염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고 해도, 박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준도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생활방역위원회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거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리 두기 수위를 매 2주마다 평가하여 조절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와 노력이 허무하도 록 앞으로도 성숙한 시민 의식과 협조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3.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족과 따로 사는 분들의 공적 마스크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4월 20일(월)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용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었으나, 유관부처 및 약사회 등과 협의하여 4월 20일(월) 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①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②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③ 임신부, ④ ⑤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이다.

①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와 ②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리 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 명서(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③ 임신부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요양기관이 발급 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④ 병원 입원환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해당 의료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⑤ 장기요양 수급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대리 구 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그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 (약 46만 명)의 경우, 4월 20일(월)부터는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지참 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또는 거소증

** 건강보험 가입 장기체류 외국인(118만 명)은 기존에도 공적 마스크 구입 가능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마스크 5부제 등을 개선하여 소 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hwp (271 KB / 다운로드 : 1033)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pdf (647 KB / 다운로드 : 657)

(별첨)_코로나19_관련_홍보자료_9종(4.19_기준).hwp (14 MB / 다운로드 : 621) [바로보기](#)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월 19일)"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이용허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다음글
- 박능후 장관 G20 화상 보건장관회의(4.19)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복지 분야 국제 공조 강조
- 이전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19일 정례브리핑)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홈페이지 가

사업별 홈페이지	소속기관 홈페이지	관련기관 홈페이지	관련국외기관 홈페이지
----------	-----------	-----------	-------------

Privacy Policy · Information Use · Index

way to come